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신수회 회장상)

최봉중 (대전 교도소)

교도소에서의 16년의 세월... 17세 젊었던 나이로는 감당하기 벅거운 무기징역을 선고 받던 날, 나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심정을 느꼈다.

날들에 대한 불운의 전주곡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내 나이 열 살 되던 해 간 경화증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아버지를 원망하기에는 아직 철부지였던 삼형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셨던 어머니.

무 그리워 눈물지었던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때마다 나는 부처님께 무릎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기도했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에, 15회 답장 안은 더욱 외롭고 쓸쓸했다.

가난·복수심 그리고 엉망이 된 나의 삶



그림·김홍인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났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품을 다 파릴 수 없지만 아픈 기억이 되기도 했지만 불법의 소중한 인연을 알게 한 사건이었다. 동생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삼형제의 뒷바라지를 하시는 것도 힘든데, 혹여나 못난 자식 삶을 비판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강도에게 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나유타 <상>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며 학교를 그만뒀어야겠다며 면회실을 나가는 동생의 뒷모습. 그때 오로지 어머니를 괴롭힌 그들에 대한 복수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두 주먹을 쥔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원망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눈물로 대신하는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순간의 기억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무명 즉 번뇌라고 했든가. 불법의 인연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겪은 삶에서 그런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내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법회에 참석하고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 들었다. 그리고 법회를 통해서 찬불가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꾸짖고 깨우치기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막상 합창단이 만들어졌지만 단원들 대부분이 악보를 볼 줄 몰라서 일일이 소리를 들려주며 귀로 익히게 해줘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들이 무슨 합창단이나"라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듣기도 했다.

킹레이 수행일기 <상>



하용식 부산 흥제종 교감

이십 여 년 동안 부산 흥제종학교에서 봉직해 왔다. 그것만으로도 불교와의 인연이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 교사, 부장교사, 교법사를 거쳐 교감에 이르고 있지만 생각나는 대로 미친한 나의 과거를 드러내 보려고 한다.

1978년 5월 본교에 부임하면서 평범한 교사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교 종립학교의 교사인 것에 별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종립학교에 근무하면서 차츰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10년이나 근무하고 난 뒤인 1988년이었다. 본교에서 교법사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맞게 되었는데 그 후임자를 들 수 없게 되었다(교사 증원 불가). 당시 종립학교에 교법사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그때 감히 용기를 내어 교장선생님께 교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허락을 해

육환경도 열약하고 규모면에서도 제일 작은 학교인데다 법당이 없는 학교는 우리학교 뿐이었다.

법당을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 박동만 교장 선생님께서 모연(募緣)으로 법당을 조성하자고 하셨다.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절(寺) 일은 절로 됩시다"라고 하시며 용기를 내어 추진하라는 말씀에 법

빈 교법사 자리말아 뒤늦게 공부 학교 법당 불사하며 '가피'에 감격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심과 용기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방황했던 일도 있었지만 오직 향학(向學)이라는 과제와 목표가 있었기에 큰 희망을 가슴에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종립학교에서 교법사로 근무하게 된 것은 분에 넘치는 행복이요,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순수한 불교교리 체계에다가 일반 상식 내지 전공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는 고뇌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0년도에 '제 21 차 교학 연구 발표회'를 불교교육연합회로부터 본교에서 하는 것으로 지명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법당이 없는 학교에서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사실 전국에 있는 불교종립학교 가운데 교

당 조성을 위한 모연이 시작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표창사를 비롯하여 밀양시의 각 사찰, 밀양시장, 밀양경찰서장 등 우리 교당의 기관장님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지만 모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였는데 법당 준공을 앞두고 모연 액수는 턱없이 모자랐다.

정산을 하고 점안식을 봉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심하던 중 평소 유대 가 있던 태양전자 송사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셨다. 그 분께서 이 사실을 들으시고는 모자라는 전액을 불사금으로 내놓으셨다. 그리하여 1990년 3월 23일 전국의 대덕스님을 비롯하여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회향 법회를 성대히 봉행하였다.

"인신난득(人身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했던가? 지금도 법당에 가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념을 모아 매사에 임하면 마음 공부든 불사는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임을 체험했다. 지금도 '절 일은 절로 되는 것일까'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 (계속)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5월초 개강

제19회 불이회 요강 불이회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앞선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상무

25차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교류활동 등을 펼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